

# 가을밤 미륵사지가 빛으로 물든다

### '2024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오늘 개막식... 한 달간 미륵사지 일원서 빛의 향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전시관으로 탈바꿈... 신규 미디어파사드 등 20여 새로운 콘텐츠 선보여

1,400년 시간을 품은 세계유산 미륵사지가 현대의 빛을 만나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익산시는 '2024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가 6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6일까지 한 달간 미륵사지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5일 밝혔다.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는 익산시와 국가유산청,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진흥원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야간 전시다.

4회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미륵사 천년의 빛, 1400년의 비밀을 탐험하다'라는 주제로 관람객에게 미륵사지의 역사와 문화를 색다르게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미륵사지 일대와 익산박물관 등 약 20만㎡(6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전시장에 △이심전심 △삼라만상 △삼륜정 △오매일어 △연계존 등 5개 구역이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백제부터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져 온 미륵사지에 숨겨진 비밀을 화려한 미디어아트와 함께 탐험하게 된다.

올해의 차별점은 범위의 확장에 있다. 지난해에 비해 활용 공간이 대폭 확대되고, 새로운 차원의 다양한 예술이 그 공간을 채운다.

실제 '시그니처 레이저아트쇼'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20여 신규 콘텐츠가 기획됐다. 미륵사지를 가로질러 미륵산 숲까지 공간이 확장되면서, 환상적인 미디어아트로 가득 찬 미륵사지를 만날 수 있다.

미륵사지 석탑의 중간지점인 '목탑지'에는 새로운 융복합 미디어파사드 무대가 설치된다. 이 무대를 활용한 공연과 전시가 기존 드로라이트쇼를



대체해 국가유산 미디어아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미륵사지를 단절하던 대형 스크린을 과감히 제거해 미륵사지 본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려는 시도가 돋보인다. 관람객들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예술적 경험을 통해 백제 문화의 깊이를 느끼고 새로운 차원의 감동을 느끼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인 시그니처 레이저아트쇼는 하루 4차례 당간지주에서부터 석탑에 이르는 구간에서 펼쳐진다. 목탑지 미디어파사드와 연계한 연출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와 시각 효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길 전망이다.

미륵사지 석탑 뒤 강당지를 활용한 융복합 소리 콘텐츠와 미륵산 숲을 배경으로 하는 화려한 레이저아트도 주목할 만하다. 눈과 귀를 자극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예술 애호가까지 모든 이들에게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 예정이다.

또 입구에 설치된 LED 미디어벽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현된 백제

악공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양쪽 연못에 설치된 미디어 폭포와 반딧불 정원 등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환상적인 빛의 세계는 관람객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국립익산박물관도 야간 개장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박물관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는 물론, 유명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이뤄진 상상 사파리 야간경관, 먹거리 장터,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있어 실 톺 없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보다 자세한 축제 내용은 2024 익산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공식 누리집(iksanlightfestival.kr)과 익산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세계유산 미륵사지의 위엄에 걸맞게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국가유산 레이저아트쇼를 준비했다"며 "이번 축제에서 익산의 자랑 미륵사지를 빛과 함께 만끽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챙겨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민 인권·문화 축제' 개최

###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 인식 개선 등 소통의 장 마련

익산시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식 개선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센터장 황정금)는 6일 모현공원에서 '제5회 익산시민 인권·문화 축제'를 진행한다. 이번 인권·문화 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화합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험과 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현장에서는 체험마당, 건강마당, 나눔마당, 놀이마당 등 크게 4개의 테마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체험 마당'은 시민들이 시각장애를 직접 체험하고, 수어를 통해 정각 장애인과의 소통방식을 배우며 '다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유도한다.

'건강 마당'에서는 혈압·혈당 체크, 체성분 분석(인바디),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나눔 마당'은 팝콘과 음료, 떡볶이 등 먹거리를 통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놀이 마당'은 풍물놀이, 네이아트, 미스트 만들기 등 문화 체험과 전통놀이 한마당을 즐길 수 있으며, 지난 4~5월에 진행된 '제9회 우리 모두 행복하고 익산 공모전' 그림 수상작 31점이 전시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누리집(www.iksanfamily.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37-123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재가장애인 방문 재활서비스 전담팀 운영

익산시가 건강취약계층인 재가장애인을 위해 맞춤형 방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재가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을 위해 월 1회 이상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방문재활 전담팀을 이뤄 혈압·혈당 등 기초건강을 측정하고 대상자의 상태에 맞춰 스트레칭, 관절가동범위운동 등 자가운동 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복지센터 재활서비스 안내를 비롯해 낙상사고 예방과 대처법 교육 등을 진행한다. 서비스 신청과 상담은 건강생활과(063-850-4918~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 보건소는 올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후원하는 '장애 특화차량 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차량 1대를 기증받는다. 이를 활용해 내년부터 방문 재활서비스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성교육의 날' 기념 캠페인 전개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4일 '2024년 제1회 성교육의 날'을 맞아 해신동 일대에서 기념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는 아동·청소년의 성(性) 건강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의 사회문제 해결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4월 4일을 성교육의 날로 제정했다.

'2024년 제1회 성교육의 날' 구호는 '모두를 위한 성교육, 서로를 잇는 성교육'이다. 개개인의 여건에 따른 불균등한 성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으로 성에 대한 건강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서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물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여 모두를 위한 성교육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13일까지 진행

### 강임준 시장, 수산종합센터서 수산물 등 구매해 취약계층에 전달

군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5일 수산물 종합센터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지난 2023년 5월에 신축 현대화되었으며, 분관도 및 건어동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산물 판매 점포(활어, 산어, 건어 수산가공품), 수산물 식당(상차림 식당, 횡집 등), 편의시설(편의점, 매점) 약 109여 개 점포가 운영 중인 서해안 대표 수산시장이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최홍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군산시장



상품권으로 수산물, 건어물 등을 직접 구매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로

했다.

또한 이날 수산물종합센터에서 구매한 물품을 기부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군산 경로식당에 전달하였으며, 상인과 취약계층을 돕는 일석이조 나눔을 실천해 따뜻한 명절 보내기에 앞장섰다.

군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5일 장보기 행사뿐만 아니라 고물가·고금리로 침체되어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단체 등이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및 식당 이용 캠페인'을 실시한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농협재단, 익산 농가에 냉장고 422대 기탁

### 황등·왕궁·남산 등 수해 피해 농가에 10일까지 방문 설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 농가들이 냉장고 선물을 받게 됐다.

농협재단이 5일 익산시에 냉장고(1891) 422대를 기탁했다. 모두 1억2,660만원 상당이다.

이날 익산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임인 전북농협 부본부장, 이상우 NH농협 익산시지부장을 비롯해 박기배 삼기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탁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수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기탁은 올해를 집중호우로 시

설하우스 내 냉장고 침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마련됐다. 농협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큰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재단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피해의 심각성, 복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농가를 정했다. 황등과 함열·삼기·왕궁·망성·여산·성당·남산 지역 피해 농가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냉장고는 오는 10일까지 제품 제조사가 농가에 직접 방문해 설치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유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종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

전주매일 캠페인